



▲ 총학생회가 지난 28일 본관 4층 총장 부속실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이고 있다.

총학생회, 총장 부속실 점거농성

1일 열릴 예정이던 산학협력 중심대학 실사 차질 빚어

총학생회 소속 학생 80여명이 지난 28일 입학정원관리시스템 철거를 요구하며 대학본관에 진입해 총장 부속실인 본관 4층 경영관리실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이고 있다.

농성에 앞서 문과대 학생회는 지난 28일 오후 3시 팔정도에서 문과대 비상 학생총회를 개최했다. 박인우 문과대 학생회장은 "학과 발전을 위한 우리의 요구안을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힌 후 곧바로 학생들과 경영관리실 점거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과 교직원간에 몸싸움이 일어나기도 했다. 학생들은 이어 경영관리실을 점거하고 본관 4층 복도와 계단을 가로막았다.

학생들은 '학생 의견 반영하라', '논의 기구 구성하라', '우리 요구 정당하다'라는 구호를 외치며 점거농성을 진행했다.

학생회가 약 2시간 정도 농성을 벌인 후 오영교 총장이 직접 나와 학생들을 설득하기도 했다. 오 총장은 "이렇게 감정적으로 해서는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대화로 해결하자"며 증강당에서 토론회를 열고 제의했다. 하지만 총학생회와 문과대 학생회는 "학교측이 합의체적 의사결정기구 구성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대화에 응할 의사가 없다"며 이를 거부했다. 이은지 부총학생회장은 이 자리에서 "순수학문을 학교가 일방적으로 정한 것대로만 평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입학정원관리시스템에 관해 해당학과와 전면 재논의 할 것을

요구했다. 학생회는 지난 28일 점거농성에 들어간 이후 30일 현재 독문과 학생들을 주축으로 약 30여명의 학생들이 번갈아가며 경영관리실에서 점거농성을 계속하고 있다. 또한 본관 입구에서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신동욱 총학생회장은 "상황을 지켜봐야겠지만 학교 측이 입학정원 관리시스템 폐지와 합의체적 의사결정기구 구성 등 학생회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한 농성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학생회의 점거농성으로 인해 학교 측의 행정업무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산학협력단은 "6월 1일 한국 산업기술 진흥원이 추진하고 있는 산학협력중심대학 육성

사업 평가를 위해 우리대학을 방문해 실사를 벌이려던 계획을 수정해 중무로 영상센터에서 실시하게 됐다"며 최장 5년간 150억 원 규모의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국책사업 평가진행에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경영관리실도 "산학협력 중심대학 선정사업은 우리대학 이공계열 발전에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며 "실사당일이라도 농성을 중단해줄 것"을 학생회에 요구했으나 학생회로부터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학본부는 지난 28일 비상 교무위원회의를 열어 이번 사태에 해결책을 논의하고 학생들의 퇴거를 권고하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정용재 기자
wonder@dongguk.edu

총·부총학생회장 무기한 단식농성 시작

입학정원관리시스템 철거 전까지 단식 계속할 예정

신동욱 총학생회장과 이은지 부총학생회장이 지난 26일 본관 앞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은 학교 측이 입학정원관리시스템을 철거할 때까지 단식농성을 계속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동욱 총학생회장은 단식농성에 앞서 총학생회 홈페이지에 공개한 결의문을 통해

"학생들이 학교의 주인으로 바로 서야 한다는 것에 대해 생명을 깎아 가는 한이 있더라도 일리고 싶다"고 밝혔다.

이날 총학생회는 오후 1시부터 본관 앞에서 농성을 위해 천막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학교 측의 제지를 받기도 했다.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은 지난 29일자로 단식

4일째에 접어들었다. 뿐만 아니라 권기홍 법대 학생회장과 나송희 예슬대 학생회장이 단식에 동참했으며 총학생회 집행부와 각 단과대 학생회에서 릴레이 단식에 참가하고, 입학정원관리시스템 철거를 위해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정용재 기자
wonder@dongguk.edu

산학협력관·기숙사 공사 6월 시행

사업개발본부 "방중공사 양해부탁"

산학협력관 및 기숙사, 지하주차장의 건축허가가 지난 20일 중구청에서 통과돼 공사가 시행된다.

6월 중순부터 공사 차량 진입과 지하 굴착 시 통행에 위해 지상에 설치하는 가설재인 '복공판' 설치 공사 등 본격적인 공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에 대해 사업개발본부 내 관계자는 "학생들의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주로 방중 주말을 사용해 공사 차량을 이동할 예정이다"며 "학생들을 위해 지어지는 건물인 만큼 소음문제와 통행 불편에 대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고 밝혔다.

2011년 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하는 산학협력관 및 기숙사는 약 750명의 기숙사 인원을 수용할 수 있으며, 연구 공간 부족으로 인한 학내 구성원들의 불편을 퇴원 줄 것으로 기대된다. 동국관과 혜화관 사이의 지하공간에 지어질 주차장은 하루 평균 전제주차대수 750여대의 절반이 넘는 차량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지어져 학내의 복잡한 교통 환경을 개선하고 안전사고를 막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신혜 기자
leeshin@dongguk.edu

옥상정원 추가 공사 실시 과학관 등 교내 5개 건물

△과학관 △금강관 △박물관 △원흥별관 △원흥 2관 등 총 5개의 교내 건물에 대한 옥상녹화사업이 추가적으로 실시된다.

이번 공사는 지난해 11월 완공된 교내 6개 건물의 옥상 녹화 사업에 이어 추가로 진행되는 공사다.

이번 사업은 서울시로부터 70%, 중구청으로부터 20%의 공사비를 지원받아 진행된다. 추가 옥상녹화 사업은 하계방학을 시작으로, 6월 중순 착공해 9월 중 완공될 예정이다. 추가 옥상녹화 사업은 학생들이 더 많은 교내 건물 옥상에서 녹색캠퍼스를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노란물결로 나아간 운구행렬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국민장 영결식이 열렸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운구행렬은 경복궁에서 시작하여 서울역까지 수많은 국민들과 함께 했다.

김윤수 기자 yshero21@dongguk.edu

이사장 선출, 또 다시 차기 이사회로 이월

영배스님 사퇴의 뜻 밝혔으나 이사들간의 합의 도출 실패

제 245회 이사회가 이사장 선출건을 차기 이사회로 이월했다.

25일 오후 3시, 본관에서 열린 이사회에는 13명의 이사 가운데 정념, 해림 스님을 제외한 11명의 이사들이 참석해 진행됐다.

이번 이사회에서 다뤄진 안건은 2008회계년도 각급기관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및 교원 인사, 이사장

선출을 비롯 총 11가지였다. 이사장 선출을 제외한 모든 안건은 무리 없이 통과됐지만, 영배 스님의 사퇴 및 이사장 선출건은 또 다시 차기 이사회로 이월됐다.

한편 열 번째 안건이었던 임원 해임 및 이사장 선출 안건 중 사임서를 제출한 감사 성철스님의 해임 및 이사장 선출에 관한 사항은 폐

기하기로 결정됐다. 통과된 안건은 △교원 인사 △2008회계년도 각급기관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사학진흥기금 기채연장 승인에 관한 사항 △의생명과학캠퍼스 조성관련 산학협력관 및 한의학관 신축공사 승인에 관한 사항 △기타사항 등이다.

김활란 기자
lan@dongguk.edu

UCLA 로버트 버스웰 교수 불교연구전담교수로 임용



미국 UCLA 로버트 버스웰 교수가 우리 대학 불교학술원 원장으로 임용될 예정이다. 이는 25일 열린

재단 이사회가 로버트 버스웰 UCLA교수를 불교학술원장으로 신규 임용하는 안건을 승인함으로써 최종 결정됐다.

로버트 버스웰 교수는 아시아 언어 및 문화학과의 한국불교 및 중국 불교 담당 정교수이며, UCLA 불교학연구소의 소장직을 맡고 있으며, 세계 불교학계의 대표적 석학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로버트 버스웰 교수의 임용은 많은 불교학 연구자들이 장차 불교학 연구거점으로 우리대학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관련기사 5면
이신혜 기자
leeshin@dongguk.edu

이번 제 1477호는 2009년 1학기 중 간행됩니다. 보내주시는 성원에 감사드리며 제 1478호는 2009년 8월 31일자로 발행될 예정입니다.

지/면/안/내

2 우리대학 인재들 업무수행능력 떨어져

3 노무현 서거 특집

4 미래사회와 대학④- 미래의 우리대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

5 로버트 버스웰 교수 인터뷰

8 미리 가 본 제주 울레

동대신문의 자발적 구독료 납부 운동에 동참해주십시오!

60여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동대신문이 자발적 구독료 납부운동을 추진합니다.

자발적 구독료 납부 운동이란 건전한 대학언론 육성과 언론인 양성을 위해

학내 구성원과 동문 등을 대상으로 구독료 납부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동대신문은 1년 구독료를 1만원으로 정하고 우편을 통해 구독하고 계신 독자들을 대상으로

구독료 납부를 요청드립니다. 동대신문은 1950년 창간돼 현재 지령 1477호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동대신문은 매호 5,000부 이상을 동문과 전국의 고등학교, 도서관, 장학재단 등에 발송하고 있으며

학교소식을 공급해 하시는 많은 동문들에게 학교의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령 2000호를 바라보는 동대신문이 보다 많은 독자와 만나고

미래의 언론인을 키워낼 수 있도록 독자 여러분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1. 연간구독료 : 1만원
2. 입금계좌 : 제일은행 114-20-734228 (예금주 : 동국대학교)
3. 입금시 성명과 졸업연도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대신문사

졸업생 교육과정 만족도 고분 상승

기업이 선호하는 대학 전체 순위는 7위로 나타나

우리대학 졸업생들이 생각하는 학교의 교육과정과 학업지도 만족도가 2007년보다 고르게 좋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는 CS경영팀이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에 의뢰해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우리대학 서울캠퍼스와 경주캠퍼스 졸업생 1955명을 대상으로한 조사결과 나타난 것이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졸업생들은 대학의 교육과정 및 학업지도의 경우 2007년 51.6%에서 57.1%로 5.6%포인트 만족도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교육내용이 얼마나 직무활용에 도움이 되는가란 질문에는 5.5%포인트, 우리대학의 명성 및 평판도의 경우 5.9%포인트 2007년에 비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과정 및 학업지도 세부항목 평가에서는 교수들의 수업열의(67.1점)가 모든 평가항목중 가장 높게 나타났고 강의 수준이 높다(65.2점), 적합한 수업방식(62.7점) 등의 순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2007년에 비해 교육과정 체계적 구성, 학업지도/취업 및 진로 지도 충실, 행정직원 서비스 친절은 각

각 7.5점 이상의 큰 상승을 보여 강의 평가 시스템과 CS 경영이 교육과정과 행정서비스에 있어 긍정적인 기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졸업생들이 생각하는 자신의 업무수행능력 평가에서는 책임감이 75.9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기본매너(72.8점), 인강성과 원만한 대인관계(72.2점), 협동심 및 타인배려 등 팀워크(71.0점), 조직문화 수용 및 적응력(70.4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공분야 전문지식, 외국어 능력, 프레젠테이션 능력, 기획력은 전체 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외국어와 프레젠테이션 능력, 기획력 제고를 위한 업무능력 강화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교육관련 개선사항을 묻는 주관식 문항에서는 실무에 대한 교육/실질적인 교육이 부족(9.8%), 커리큘럼이 세분화/다양화/전문화 필요(5.8%), 행정실/교학과 불친절(5.0%), 창업/취업에 도움되는 커리큘럼이 필요(4.2%), 교수의 전문성/자질 부족(4.1%) 등이 지적됐다.

또, 후배들에게 제공되었으면 하

는 사항을 묻는 질문에는 영어회화 및 토의 수준 향상(8.6%)과 어학 관련 능력(8.4%)이 높게 나타났고, 기업파견수업/인턴(5.3%) 전공별 실무적 전문교육(5.1%) 전문분야 지식/자격증 취득 지원(4.5%) 전문적인 컴퓨터 활용능력 배양(4.4%) 등 대부분 취업과 관련된 내용이 주를 이뤘다.

한편 이번 조사와 함께 실시된 기업체의 인사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한 우리대학 졸업생들의 업무수행능력 조사결과에서는 기업체가 요구하는 업무능력중 시장경쟁에 대한 이해도와 시사능력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기업의 요구수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외국어 능력과 문제해결능력, 기획력, 프레젠테이션 능력의 경우 기업이 원하는 수준보다 크게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체가 선발하고 싶은 대학 전체순위에서는 연세대가 가장 높게 평가됐고, 우리대학의 경우 고려대, 한양대, 성균관대, 서강대, 서울대에 이어 전체 7위로 나타나 비교적 상위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용재 기자 wonder@dongguk.edu



진흙쿠키를 아시나요? 108리더스 소속 학생들이 지난 27일 팔정도에서 진흙쿠키를 직접 만들어보고 학생들에게 나눠주는 나눔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학생들은 쿠키를 직접 먹어보면서 국민국 어린이들의 절박함을 몸소 체험했다.

김윤수 기자 yshero21@dongguk.edu

본관3층 리모델링 학생서비스 접근성 개선

본관 3층 리모델링 공사가 오는 24일부터 8월 셋째 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이 기간 동안 교무팀, 국제화 추진단 등 본관 3층에 위치한 행정 사무실들은 만해관 강의실에서 임시로 업무를 보게된다.

또한 운영지원본부 구매팀과 사업개발본부는 2층에서 업무를 진행하게 된다. 이번 공사는 그동안 본관 2층과 3층에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들이 떨어져 있어 서비스 이용하는데 많은 불편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실시되는 것이다.

또한 중앙당에 행사가 있을 때마다 좁은 복도에 부스를 설치해 통행에 지장이 많았다. 이에 총괄 지원팀은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3층에 CS센터를 설치하고 중앙당 앞 교무팀 사무실을 절반가량 줄여 작은 홀을 만들기로 했다. 또한 오래된 전장 등을 바꿔서 쾌적하게 하며 사람들의 동선을 고려해 본관 3층을 리모델링 한다.

축구부 조영훈 선수, 하계유니버시아드 출전



우리대학에서는 조영훈(체고 2, DF) 군이 남자축구 대표팀 대표선수로 선발됐다.

동악로에서

정용재 기자 wonder@dongguk.edu



교수라는 이름의 무게

4·19혁명 당시 전국 27개 대학의 교수 300여명은 "4·19에 쓰러져간 학생의 피에 보답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제업의 자유 영역에 속하는 일이다. 그러나 시위는 성격이 다르다. 대학을 대표하는 지식인 교수들이 대화와 토론보다 거리에서 직접 의견을 개진하는 행동에 나서서 하는 표현의 자유를 넘어 스스로를 구속하는 족쇄가 될 수도 있다. 또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특히 농성을 벌이는 현장을 지나쳐 보란듯이 시위를 벌이는 것은 마치 학생회와 어떤 교감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들게 한다. 이같은 우려는 교수회 정기총회에서도 제기됐었다. 유덕기 교수회장은 "총학생회와는 관계없는 교수회의 의지"라며 선을 그었지만 결과적으로는 학생들의 농성을 자극하고 선동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4·19혁명 당시 전국 27개 대학의 교수 300여명은 "4·19에 쓰러져간 학생의 피에 보답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제업의 자유 영역에 속하는 일이다. 그러나 시위는 성격이 다르다. 대학을 대표하는 지식인 교수들이 대화와 토론보다 거리에서 직접 의견을 개진하는 행동에 나서서 하는 표현의 자유를 넘어 스스로를 구속하는 족쇄가 될 수도 있다. 또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특히 농성을 벌이는 현장을 지나쳐 보란듯이 시위를 벌이는 것은 마치 학생회와 어떤 교감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들게 한다. 이같은 우려는 교수회 정기총회에서도 제기됐었다. 유덕기 교수회장은 "총학생회와는 관계없는 교수회의 의지"라며 선을 그었지만 결과적으로는 학생들의 농성을 자극하고 선동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28일 교수회는 정기총회를 마치고 유덕기 교수회장을 비롯한 20여명의 교수들이 '총장 즉각 하야'라는 구호가 적힌 현수막을 내걸고 팔정도를 한바퀴 도는 시위를 벌였다. 교수들이 현수막을 들고 시위를 벌이는 행위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80년대의 민주화의 열기가 높았던 시절에도 교수들의 시위는 매우 드문 일이었다고 한다. 교수들이 피켓을 들거나 현수막을 든 채 집단적으로 거리를 행진하는 시위에 소극적인 것은 교육자로서 그리고 대학을 대표하는 지식으로 높은 책임감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교수회는 지난해에도 총장 선출에서부터 강의평가, 교원평가 등 학교측이 추진하는 정책과 관련해 반대성명서나 결의안을 발표했다. 학교의 정책이나 총장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견

교수회, 총회 열고 불상 앞에서 시위

83명 참석 ... 입학정원관리시스템, 교원평가 등도 철회 요구

교수회가 정기총회를 열고 총장 퇴진과 입학정원 관리시스템 백지화, 교원평가시스템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교수회는 지난 28일 337명의 교수중 199명(83명 참석, 116명 위임장 제출)의 교수가 참여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총장 퇴진 등의 내용이 담긴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정기총회는 교수회 활동보고와 감사 및 결산보고, 안건보고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정기총회에서 교수회는 학제개편 및 입학정원 관리시스템, 신규교원 전면 특별채용, 교내 연구비 지원제도, 총장 퇴진을 안건으로 상정해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학제개편 및 입학정원 관리시스템 안건에 관해서는 입학정원 관리시스템이 기초학문과 응용학문의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해당전공의 특성을 간과하므로 철회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신규교수 전면 특별채용에 관한 안건은 학교가 발표한 특별채용이 경력자 중심의 교원초빙과 신규학위 취득자에게 돌아갈 기회를 박탈하고 본부 중심으로 교수 채용이 이뤄져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균형있는 인력수급제도를 촉구하기로 결의했다.

교수회는 또, 교내 연구비 지원제도의 경우 일간지(조선, 중앙일보) 평가지표에 연구비지원이 종속되고 있다고 비판하고 연구업적 인센티브 제도 일관성 부재, 연구업적 보상지원 일방적 감축에 대해 철회를 요구하기로 했다.

애초 '총장중간평가의 처리'라는 제목으로 상정된 안건은 총회에서 '총장 퇴진' 안건으로 변경돼 처리됐다. 이는 지난해 총장 중간평가 결과 부정적 의견이 다수를 차지한 것과, 지난 12월 대의원회에서 총장불신임안을 만장일치로 결의한 것을 바탕으로 총장의 퇴진을 요구하기로 결의했다.

정용재 기자 wonder@dongguk.edu

유덕기(식품산업시스템) 교수회장은 대의원회와 특별자문위원회와의 회의를 통해 도출한 교수회 총회 결의안을 제시하고 교수회에서 의견 여부를 물었다. 그 결과 총회에 참석한 83명 교수들의 동의를 거쳐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한편 교수회 총회에서 일부 교수가 이번 결의안이 자칫 교수회가 총학생회를 선동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며 신중한 태도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유덕기 교수회장은 "이번 결의안은 총학생회와는 관련 없는 교수회의 의지"라고 밝혔다.

총회가 끝난 후 교수회는 '비교 유적이고 독선적인 오영교 총장은 즉각 퇴진하라'라는 현수막을 들고 팔정도를 돌며 총학생회가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는 대학본관앞을 지나 시위를 벌인 후 불상앞에서 마무리했다.

- 호 소 문 -

대학을 지성의 전당이라고 일컫는 것은 그만큼 대학의 가치와 존재방식이 가장 이성적인 합리성과 냉철한 자기성찰을 기반으로 자기 행위의 규범성을 준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난 5월 28일, 우리 학교에서 그러한 대학의 기본 가치가 일부 학생들에 의해 여지없이 짓밟히는 치욕적인 행위가 발생했습니다.

이날 오후 불시에 일부 학생들이 본관으로 난입하여 총장 부속실 및 경영관리실과 복도를 점거하고, 완력 동원으로 교직원들의 진출입을 저지하고 집단적 구호 연발 등의 과격한 물리력으로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등 학생의 신분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기본마저 저버리는 행위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미 26일부터 금번 정례적으로 시행되는 입학정원관리시스템의 결과 적용과 편제 개편 등의 행정적 사안에 대한 불만을 내세우고 총학생회장단이 본관 정문 앞 교통로를 무단 점유하고 단식농성을 하면서 교통 방해와 과도한 확성기 소음 발생을 통한 업무 방해를 지속해 오고 있습니다. 이에 학교당국은 당 행위가 학칙 위반 사항임을 지적하였으며 학생들에게 비이성적 의사 표출 방식을 자제하고 여하한 방식의 의사소통을 제안하는 지도를 하였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학생들은 오히려 기습적인 점거 행위를 하였으니 이러한 작태는 더 이상 교육적 차원의 선도만으로 인내할 수 없다는 판단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교직원이 수차에 걸쳐 농성 학생들에게 이성적 행동의 회복과 점거농성의 부당함을 호소하고 설득하였으나 어떠한 반성의 기미도 없이, 총장이 직접 나선 설득의 자리에서조차 야유와 대화 거부라는 완강하고 반지성적인 행동을 더욱 노골화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더구나 소수 학생대표들이 학교행정의 실질적 내용에 대해 이해가 부족하고 면학에 정진해야 할 학생들을 집단적으로 동원하여 불철저한 개

념으로 막연한 구호만 반복하도록 오도하는 이러한 소요 행위가 오늘날에도 백주에 대학의 공간에서 발생하고 있음에 경악을 금할 수 없으며,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학생들 구호의 요지는 '학계 개편 반대, 상시입학정원관리제 폐지, 학생과의 합의기구 구성' 이었습니다. 과연 학생들의 구호 속에 내포된 의식의 핵심은 무엇이었습니까. 학생들이 학교의 계만 행정에 의사결정권을 공유해야 한다는 요구는 학생자주권의 범주를 넘어선 학칙상으로는 물론이며 사회적 실정법으로도 허여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학생들이 문제시하고 있는 사안은 학교당국이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학교의 행정조직과 학사관리 체인의 요체인 만큼, 우리 대학이 획기적으로 변혁을 도모하여 진정으로 일류대학의 대오에 합류하기 위한 필수적 과정입니다. 안일과 답습의 타성을 벗어나기 위해 우리 모두가 감내하고 수용해야 할 사안입니다. 이해상관에 의하거나 편협된 관점과 왜곡된 사실에 의지하여 동국 변화의 도도한 흐름을 부정하고자 하는 일부 구성원들의 태도는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이제 우리 대학의 대도약과 올바른 민학풍토의 정착은 지상과제입니다. 대부분의 구성원들이 자기 직분에 충실히 매진하고 있음을 굳게 신뢰하고 이에 감사드립니다. 학교당국의 총정과 소신을 곡해하고 거부의 태도로 일관하는 일부 구성원들은 불신과 오해의 우물에서 떨어져 나와 자기 직분과 위상에 충실하고 최선을 다하는 미덕을 발휘하여 동국의 발전에 박차를 가하는 노력에 동참해주시기를 호소합니다.

2009년 5월 29일
교무위원 일동

회전무대

바보들을 위한 바보

○...바보의 화를 풀어주기 위해 계란을 맞아주던 바보 아무도 없는 공터에서 연설을 하던 바보 남 앞에서 당당하게, 우리 앞에서는 겸손했던 바보 우리의 눈높이를 맞춰 소탈하게 웃어주시던 국민을 위한 대통령 노무현, 2009년 5월 23일 눈을 감다.

위험한 핵 퍼레이드

○...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한 지 얼마 됐다고 북한의 이색 불꽃놀이 개최! 강력한 핵 폭죽이 터지고 미사일은 평화를 가른다. 축제 목적은 유엔 안보리 의장 결정으로 많은 나라들이 PSI하며 목을 죄는 등 북한 숨통 막히는 일 많아 하는 행사 안전의식 없이 위협, 불건전 폭죽놀이는 예정대로 북한 핵 퍼레이드는 세계를 위협한다

강의실은 핸드폰 낙원

○...26일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가 핸드폰 사용한 학생을 야단치 시니, 학생은 오히려 전자사전을 사용했음 뿐이라며 큰소리 탕탕. 애들이 중고등학교에서 핸드폰 예절을 못 배우고 대학 들어오니, 교수님은 "대학생이니~" 하시며 멀뚱히 수업만 하실 뿐이고, 수업 시간에 진동은 기본이고, 어쩔 땐 전화벨 소리까지 당당히... 최소한 무음은 필수! 학년이 높아져도 학생의 도리는 지키셔야죠?!

일산병원 기부자 초청 오는 4일 행사 개최

대의협력력이 오는 4일 일산병원 개원 4주년을 맞이해 병원으로 70여명의 기부자들을 초청, '일산병원 발전기금 기부자 초청행사를' 갖는다. 본 행사는 오는 4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일산보통병원에서 개최되며, 병원 투어, 의료원 비전 및 발전 전략 설명, 기부자들의 의견 청취, 오찬 등의 내용으로 진행된다. 한편 이번 행사에 초청되는 기부자들은 70여명 정도로, 동문 출신 의 스님 및 불교 신도들이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의미 있다.

기획연재- 미래사회와 대학 ④ 미래의 우리대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

‘대학 과잉의 시대’ 준비 않는 대학에 미래는 없다

교육수요자 중심의 대학 경영 필요, 전공 간 융합·통섭 활성화 돼야

글 쓰는 순서

1. 미래사회의 모습
2. 미래 대학의 학문구조
3. 미래사회와 대학 인프라
4. 미래의 우리대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

블과 5-6년 후에 한국의 모든 대학이 ‘공급과잉’의 문제를 안게 될 것이라는 것이 교육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그렇다면 그 대비책은 현재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공급에서 소비로 경제의 패러다임을 전환시켜야 한다는 주장과 마찬가지로, 교육 수요자들을 중심으로 구성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이는 더 이상 대학이 다수의 지원자 중 정원을 선발하는 호사를 누릴 수 없는 엄연한 현실에서 촉발된 위기라고 할 수 있다. 대학의 존립을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자들을 찾아내야 하는 상황이 도래한 것이다.

혼돈과 위기의 미래사회

위기는 인구구조의 변화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다.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세계적인 경제위기는 정치, 사회, 문화 모든 영역의 위기를 연쇄적으로 촉발시키고 있다. 이는 과학 발전이 인간의 인식범위를 넓혀서 존재 그 자체까지 침투하는 코페르니쿠스적 대전환을 이미 야기한 배경에 더해진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시대적 상황이 새로운 인식론적 패러다임을 필요로 하는, 바로 그런 역사적 전환점을 맞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구체적 효능이 제 수명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질서가 아직 자리 잡지 못하고 있는 점이다.

상황이 이렇진대 혼돈과 위기가 이 시대의 화두가 아닐 수 없다. 동국대학교도 예외가 아니다.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지만 새로운 시스템의 정착은 여전히 갈등적이다. 계획과 실천 사이에서 새로운 제도의 일부가 정착된 반면, 대부분의 구성은 아직도 관행의 형태로 구조화되어 있다.

동국대학교의 미래를 설계하는 첫걸음은, 그렇다면 모든 구성원이 현재의 상황을 거시적 위기로 판단하는 인식의 공유를 통해 당장 다가올 변화에 대처하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중장기적으로 경쟁력이 담보되는 보다 정교한 시스템을 정착시키는 데에 있을 것이다.

교육 수요자가 원하는 대학

동국대학교의 미래전략은 더 이상 대



▲ 학시운영에서부터 거버넌스 구조까지 학생이 중심이 되는 대학을 지향해야한다.

학 내부의 일부 조정으로만 완성될 수 없다. 대학이 학생을 선발하던 상황에서 지원자가 대학을 선택하는 환경으로 전환되는 것이 가까운 장래의 현실이라면, 이는 모든 비전과 전략이 잠정적인 교육 수요자들로 하여금 동국대를 매력적인 배움의 장소로 여기도록 만드는 일에 집중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제까지 대학과 교수의 주도로 교육이 운영됐다면, 미래에는 학생의 필요와 요구에 직접적으로 부합하는 교육제도의 혁명적인 변화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학교가 군림하는 시대가 끝난 것이다.

동국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한마디로 학생이 중심이 되는 대학을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 거버넌스 구조에서부터 학사운영에 이르기까지 대대적인 구조변화가 필요한 일이지만, 동시에 기존에 동국대가 가지고 있는 소프트웨어를 더욱 계승, 발전시키는 작업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옛것과 새것을 조화시키는 일은 오늘날 학문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융합과 통섭의 개념과 무관한 것이 아니다. 동국대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교육 수요자들에게 제시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미래 전략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다행히 동국대는 불교, 인문학, 경찰행정학, 그리고 영상과 공연의 영역에서 대외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각각의 분야는 오랫동안 동국대를 상징하는 전공으로 인식됐고, 그 명성에 걸맞는 성과도 거두고 있다.

그러나 이런 전공들이 동국대 전체를 대표하기에는 너무나 한정된 분야에 치

우져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와 융합하고 통섭하는 방식으로 발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문제로 남아있다. 예컨대 불교와 인문학이 예술에 영감을 주고, 사회과학에 이론적 토대를 마련해 주는 통합 학문으로 제시되지 않고서는 경쟁은커녕 전공으로 남아있기조차 어려운 위기를 맞을 수 있는 것이다.

학문구조는 융합으로

동국대학교가 경쟁력이 있는 대학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한정된 전공을 중심으로 미래전략을 세울 것이 아니라, 좀 더 획기적인 기획이 필요하다. 우선 대학과 대학원 교육을 차별화 하는 이중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위권에서 상위권으로 도약하려는 동국대의 노력과 부합하는 계획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대학이 교양과 기초교육에만 전념하고, 대학원을 전공분야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본격적인 전문교육기관으로 육성하는 것으로, 다가올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대학의 사명이 분디 전인교육을 실현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더구나 융합과 통섭의 요구가 거세진 환경에서 현재와 같은 세분화된 전공교육을 대학단위에서 계속하는 것은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일이기도 하다. 앞으로는 각 대학 단위에서 굳이 학과로 전공을 구분할 것이 아니라, 학부 내부의 울타리를 허물어 학생 스스로가 교육의 내용과 방향을 결정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 패러다임 전환으로 인한 혼돈의 미래사회를 대비해 중장기적 대책을 마련해야한다.

이는 최소한의 전공교육이 지속될 것이지만,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인문, 사회, 자연, 예술 분야의 모든 전공을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도록 새로운 환경을 조성하는 일이기도 하다.

학부제의 폐단을 이미 경험한 상황에서 대학의 전공교육을 대폭 축소하고, 대신 교양교육의 장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에 선뜻 동의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이런 큰 틀에서 교육이 이뤄진다면 이제 교수는 학생들이 주목할 수 있는 커리큘럼을 개발해야 할 것이고, 그런 만큼 교육의 내용과 방식에서 다양한 변화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 강의에 관심과 재능이 있는 교수와 연구에 집중하기를 원하는 교수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며, 각자가 가진 장점을 개발하는 방식으로 교수진을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에 따른 교수의 평가와 승진의 기준이 달라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학부 교육이 전공보다는 교양교육을 강화하는 대신 대학원 교육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전공교육을 심화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동국대 대학원은 이제 세계 최고의 수준에서 경쟁할 수 있는 전략적인 분야를 중점적으로 육성하는 교육기관으로 재편성 되어야 한다.

이는 대학원이 동국대 전체의 명성과 재정을 책임질 수 있을 정도로 탁월한 연구 성과를 산출해 낼 수 있는 분야로 재구성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쟁력이 있는 기존의 인문, 예술분야 뿐만 아니라, 이공계에서 미래가치가 담보된 분야를 전략적으로 특화, 육성시킬 필요가 있다.

요가 있다.

엄격한 학사운영 도입 필요

그렇다면 이를 성취하기 위해 필요한 액션 플랜은 무엇인가? 해답은 미시와 거시전략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다. 거시적 전략이 구조변화에 대한 계획을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며, 그 계획을 가장 효율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새로운 거버넌스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인데 반해, 미시적 전략은 학사와 관련된 모든 혁신안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거시적 전략이 구조를 변화시키는 어려운 작업인데 비해서, 미시적 전략은 구성원의 열정과 의지로 충분히 실현 가능한 영역이다.

따라서 우선 당장 실천 가능한 것부터 시작하는 일이 중요하다. 이는 엄격한 학사관리를 실행하는 것 같은 가장 기본적인 일에서 출발한다. 동국대는 이제 공부하는 대학으로 재탄생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학생들에게 더 많은 과제를 부과하고, 더 많은 책을 읽도록 만들 것이며, 더 많은 교양을 쌓도록 교육의 방향이 변해야 한다. 학생들에게 심화된 교양교육을 제공하는 것에 덧붙여 동국대는 전공에 관계없이 누구라도 사회에서 요구하는 평균 이상의 실용지식, 예컨대 영어, 컴퓨터, 회계 등과 같은 기본소양을 갖춰야 졸업이 가능한 대학이 되어야 할 것이다.

재정자립 확충되어야

어렵게만 생각되는 거시적인 재정의

문제도 운용하기에 따라서는 자급자족을 성취할 수 있을 것이다. 동국대처럼 외부 자금의 유입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전략은 내부 자원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다. 이는, 예컨대 경쟁력 있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강의료, 장학금에 따라 충분한 보상을 보장한다면 현재 대학(원) 등록금 수입을 상회하는 결과를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창의적인 학습 프로그램의 개발은 적극적인 교수의 참여 없이 불가능한 일이다. 자발적인 참여의 동기를 부여하는 최상의 방법은 노력과 성과에 비례한 보상일 것이다.

재정자립의 또 다른 방안으로 국가 신성장산업발전계획에 기여할 수 있는 전략적 분야에서 노벨상 수상자급의 세계적인 석학을 초빙해 대학원 프로그램을 활성화 시키는 방법이 있다. 이는 교수초빙에 투자한 액수 이상의 프로젝트를 수주할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교육의 질을 대폭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과 재정자립을 동시에 성취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전략이다. 이와 유사한 접근 방식은 동국대에서 이미 경쟁력을 확보한 여타의 전공에서도 시도해 볼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충실한 교육과 재정자립을 동시에 성취하는 문제가 반드시 불가능한 일만은 아닌 것이다.

대학, 구성원 노력 전제돼야

대학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구조(거시)와 구성원(미시)의 변화가 동시에 전제됐을 때 가능한 일이다. 어느 하나의 변수만으로 성공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기는 어려운 일이다. 그것은 두 변수가 매우 복잡하게 함수관계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얽혀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출발점은, 가능한 변수를 먼저 작동시켜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일일 것이다.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동국대학교가 안고 있는 이른바 ‘본질적’인 문제라 하는 것도 결국 대학 구성원의 노력에 따라 얼마든지 개선할 수 있는 유동적인 개념인 것이다.

조종출

영화영상학과 교수

미래기획부 미래발전전략과장



사회교육원 특별과정 수강생 모집 안내

【상담】 학습관 1층 사회교육원 TEL : 2260-3728~9 FAX : 2260-3730

사회교육원 여름방학특강 안내

개설강좌명	담당교수	강의시간및 요일	수강료	개강일 강의기간
미술심리지도사 초급	이명은	수 10:00~17:00	330,000원	2009.6.24 7.5주(45시간)
미술심리지도사 중급		토 10:00~17:00	330,000원	2009.6.27 7.5주(45시간)
주산활용수학교육사 기초-주중	김선태	월, 수 10:00~13:00	330,000원	2009.6.29 7.5주(45시간)
주산활용수학교육사 기초-주말		토 10:00~17:00	330,000원	2009.6.27 7.5주(45시간)
주산활용수학교육사 심화-주중		화, 목 10:00~13:00	330,000원	2009.6.30 7.5주(45시간)
기문정명학 초급 특강	김기정	목 10:00~12:00	100,000원	2009.6.25 8주(16시간)
기문정명학 초급 특강		목 14:00~16:00	100,000원	2009.6.25 8주(16시간)
육인 초급 특강	이우산	화 14:00~16:00	100,000원	2009.6.23 8주(16시간)
육인 중급 특강		화 18:00~20:00	100,000원	2009.6.23 8주(16시간)
기본한문 특강 (천자문)	이한성	월, 수 10:00~12:00	100,000원	2009.6.22 6주(24시간)
원전강독 (정감록 비독)		목 14:00~17:00	100,000원	2009.6.18 7주(21시간)
선두주 특강		목 19:00~21:00	100,000원	2009.6.18 9주(18시간)

- ▶ 접수기간: 2009. 6. 1(월) ~
- ▶ 접수방법: 사회교육원 홈페이지 수강신청 (http://edulife.dongguk.edu)
- ▶ 수강료납부방법: 가. 계좌이체 (신한은행) 140-002-017211 (예금주: 사회교육원) 나. 카드수납 (BC, 국민, 삼성, 신한 가능) - 사회교육원 학사운영실

미술심리지도사 여름방학 수강생 모집

미술심리는 미술이라는 매체를 통하여 무의식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갈등을 의식으로 끌어냄으로써 스스로 마음을 치유하는 내면탐색과정으로써 진단투사법 및 상담과정을 공부하는 과정으로 자격증 취득 가능합니다.

- **교육과정**: 초급, 중급, 고급, 임상(4단계)
- **강의시간**: 초급: 수요일 10:00~17:00 (개강-6월24일)(7.5주, 45시간) 중급: 토요일 10:00~17:00 (개강-6월27일)(7.5주, 45시간) * 초급, 중급 동시수강 가능하며, 어느 단계를 먼저 들어도 무방함. * 고급, 임상은 2009년 9월 개강합니다.
- **담당강사**: 이명은(이명은미술치료연구소, 색채심리치료협회자문위원, 인천드림센터미술치료), 황영순(서울대학병원 미술치료), 김희영(김희영미술심리치료연구소, 여성회관미술치료강사)
- **학기당교육비**: 각 단계별 330,000원
- **교재**: 학교자체교재 및 프린트물
- **지원자격**: 전문대졸 이상 자격증 취득 가능
- **특 전**: - 소정의 과정(출석80%이상)을 이수한 자에게 총장명의 수료증을 수여함. - 본 과정을 수료한 자에 한하여 사단법인 한국대학부설평생교육원협의회 주관 미술심리지도사 자격증 취득 검정시험 응시 자격이 부여
- 원하는 자에 한하여 미술치료사자격(임상의 시간)이수:360시간) 주어짐.
- **접수기간**: 2009. 6. 1~
- **접수방법**: 사회교육원 홈페이지 수강신청? (http://edulife.dongguk.edu)
- **수강료납부방법**: 가. 계좌이체 (신한은행) 140-002-017211 (예금주: 사회교육원) 나. 카드수납 (BC, 국민, 삼성, 신한 가능) - 사회교육원 학사운영실
- **문의처**: 담당강사 ☎011-9963-0089

주산활용 수학교육사 여름방학 수강생 모집

2009학년도 동국대학교 사회교육원 주산활용수학교육사 자격증 취득과정 입학 안내입니다. 주산·임상의 체계적인 지도교수법과 초등수학, 교직이론을 배워 유치원과 초등학교 특기·적성 강사, 각종학원, 문화센터 등의 교육기관에 취업을 원하시는 분, 학원이나 교습소, 공부방 창업을 계획하고계시는 분, 배워서 자녀를 직접 가르치고자 하는 학부모, 교육기관에 주산임상 반 신규개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교육기관 운영자 및 선생님, 방문지도 등의 프리랜서로 활동하고자 하는 분들께 이 과정의 수강을 권합니다.

- **지원자격**: 학력과 연령 제한 없음 (자격증 취득은 고졸 이상, 18세 이상)
- **수강신청**: 2009. 6. 1~
- **교육기간**: 2009. 6. 27 ~ 8. 22 (7.5주)
- **강의시간**: 기초과정 평일반 - 월, 수요일 10:00~13:00(6월 29일 개강) 주말반 - 토요일 10:00~17:00 (6월 27일 개강) 심화과정 평일반 - 화, 목요일 10:00~13:00 (6월 30일 개강)
- **담당강사**: 김선태 (e-mail: daehan3117@hanmail.net, 010-6202-3777) -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경영 전공 - 주산, 임상, 수학교육 등 30 여년 현장교육 경력 - 현, daum cafe 주산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커뮤니티 운영
- **수강료**: 과정별 330,000원
- **접수방법**: 사회교육원 홈페이지 수강신청 (http://edulife.dongguk.edu)
- **수강료납부방법**: 가. 계좌이체 (신한은행) 140-002-017211 (예금주: 사회교육원) 나. 카드수납 (BC, 국민, 삼성, 신한) - 사회교육원 학사운영실
- **교육특전**: - 90시간 이수 후 동국대학교 총장 명의 수료증서 수여 - 90시간 이수 후 주산활용 수학교육사 자격시험 응시자격 부여 - 취업후턴 및 창업지도
- **입학상담**: 동국대학교 사회교육원 행정지원실 ☎ (02) 2260-3728-9
- **교육상담**: 김선태 010-6202-3777 (daehan3117@hanmail.net)

“자기주도학습지도사” 수강생 모집

사회교육원에서는 중앙일보 조인스닷컴과 초,중고학생들의 “자기주도학습능력”을 키워 줄 “자기주도학습지도사” 교육과정을 개설합니다.

최근 대학입시의 화두로 떠오른 ‘입학사정관제’의 근간을 이루는 “자기주도학습” 이론과 실제 현장 실무를 온라인 수업(60시간)과 실습(출석수업 20시간)으로 3개월 간 학습하게 되며, 다양한 영역에서 “자기주도학습” 전문가로 성장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 전문가의 꿈 !! 동국대 사회교육원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 ◆ **교육대상**: 교육에 관심있는 일반인
- ◆ **교육문의**: 사회교육원 학사운영실(Tel:2260-3730)
- ◆ **수강방법**: 온라인수업(60시간/2개월)+출석수업(20시간/1개월) 총3개월
- ◆ **수강료**: 660,000원
- ◆ **신청기간**: 2009년 6월1일~6월 30일, 사회교육원 홈페이지 (http://dulife.dongguk.edu/)
- ◆ **개강일**: 2009년 7월 1일 ~

“동국대와 세계불교학계 잇는 다리 될 것”

세계 불교학계 대표적 석학 로버트 버스웰 교수 인터뷰



로버트 버스웰 교수

- 1974년 전남 송광사에서 '혜명'이라는 법명 취득.
- 1985년 UCLA 대학에서 박사학위 취득.
- 1986년 UCLA 동아시아 학과에 교수로 부임.
- 1983년 UCLA 한국학 센터를 설립.
- 2008년 미국의 아시아 학회 학회장으로 선출, 만해대상 수상.
- 현재 UCLA 한국불교 및 중국 불교 담당 정교수, UCLA 불교학 연구소의 소장.

UCLA 로버트 버스웰(Robert Buswell) 교수는 지난 3월, 시카고에서 열린 아시아 연구 협회 연례 모임(The Association for Asian Studies annual meeting)에 참가하는 도중 오영교 총장에게 예상치 못한 제안을 받게 된다. 바로 우리대학 연구전담 교수로 불교학술원 원장에 모시고 싶다는 뜻을 전달한 것.

그는 그 자리에서 이 제안을 받아들였고 지난 25일 이사회가 로버트 버스웰 교수의 특별 채용을 승인함으로써 이번 달에 우리대학에 새로운 보금자리를 틀게 됐다.

로버트 버스웰 교수는 현재 UCLA(캘리포니아대 LA캠퍼스) 아시아 언어 및 문화학과(Department of Asian Languages and Cultures)의 한국불교 및

중국 불교 담당 정교수이며, UCLA 불교학 연구소(Center for Buddhist)의 소장직을 맡고 있는 세계 불교학계의 대표적 석학이다.

그는 서면으로 진행된 인터뷰에서 “동국대가 세계 불교 연구의 주요한 축 중 하나를 담당하고 있다”며 “동국대학교에 임용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 동국대에 온다면 하루빨리 동국대가 진행하고 있는 세계적 수준의 불교학 연구에 동참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버스웰 교수는 이번 달에 한국에 입국해 연구전담교수로 우리대학에서 활동하게 된다. 그는 “여름 방학 기간 3개월, 겨울 방학 기간 1개월 동안 학교 근처에서 거주할 예정이며 학교로부터 연구실과

여비, 월급 등을 지원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21살 이던 1971년 승주 송광사에서 출가해 혜명이라는 법명을 받은 대표적인 지한과 불교석학이다. 그는 출가 당시 지금은 고인이 된 우리대학의 이기영 교수와 고인친 교수로부터 많은 사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우리대학은 그가 있는 UCLA와 오랜 기간 동안 깊은 인연을 맺고 있다. 우리대학과 UCLA는 1988년 이래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오고 있다.

그는 “자신의 이번 임용이 UCLA와 동국대가 학생교류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연구에서도 인연의 끈을 더 탄탄히 묶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UCLA는 현재 우리나라 밖에선 유일하게 한국 불교 관련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대학으로 중국 일본 불교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세계 불교학계에서 한국 불교를 알리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대학이다.

그는 현재까지 한국 불교를 전공한 11명 이상의 박사를 길러냈다. 그 중에는 김종명 교수(한국학중앙연구원), 박포리 교수(Arizona State University), Richard McBride 교수(Washington University at St. Louis) 등이 포함 되어 있고, 고승학(서울대 불교학 석사 졸업)씨등 여러 명을 박사과정에서 지도하고 있다. 또 UCLA 불교학 연구소(Center for Buddhist)의 소장직을 역임 하면서 한국 불교를 세계에 알

리는데 큰 공헌을 하고 있다.

버스웰 교수는 “한국의 불교학계가 세계적 수준의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화가 부족해 그 가치에 비해 덜 알려져 있다”며 “앞으로 학부와 대학원 학생들에게 불교학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국제적 감각을 길러주고 싶다”고 밝혔다. 더불어 “자기 자신이 먼저 한국 불교 용어를 영어로 번역해 한국 불교의 세계화에 기여하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까지 ‘원호 전서 영역사업’에 참여하여 ‘금강삼매경론’을 번역했으며 현재 원호의 저서에 대한 번역 프로젝트도 진행하고 있다. 또 앞으로 보조국사 지눌과 조계종 관련 번역사업도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번 여름방학 2009 Summer School에서 원호에 초점을 맞춘 ‘세계화 시대의 한국불교’에 관한 강의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불교에 관심이 많은 학생이라면 이번 기회에 그의 강좌를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번엔 신설하게 되는 우리대학의 불교학술원 원장으로 내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국제적 회의를 한국에 유치해 세계적 석학들과 동국대학교의 교류에 기여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로버트 버스웰 교수가 우리대학에서 어떠한 결실을 맺을 지 주목되고 있다.

이영호 기자
blueeagle@dongguk.edu

〈8〉 자살의 연구

교양교육원

권보드레 교수의

시련을 극복하는 책임기



자살의 연구

지은이 : 제레미 리프킨
이창희 역
펴낸곳 : 세종 연구원

기가 빌려간 후 돌아오지 않았다. 돌려달라고 재우쳐 본 적도 없다. 곳곳에 벌겋게 그어놓은 밑줄이 민망했지만, 그 사람들도 여기저기 밑줄을 덧칠하지 않았을까 싶었다. 그대도 세 번이나 같은 책을 사다. 거슬리는 대목이 많다고 생각하면서도 말이다. ‘자살의 연구’는 매끈한 책은 아니다. 미국 시인 실비아 플라스의 자살을 다룬 서장과 저자 자신의 자살 미수 경험을 쓴 종장은 다소 거칠고 수다스러워 보이기도 한다. 대체로 자기가 싫은 자기에게만 특별한 법 아닌가. 누군가의 죽음을, 혹은 죽음의 시도를 경계케 만든다는 것도 쉽지 않다. 그럼에도 이 책은, 경험상, 실제로 ‘시련을 견디는 데’ 도움이 되는 책이다.

자살의 역사와 그 심리적 동기와 특별히 문화와의 연관을 다룬 장의 배치는 자못 학술적으로 보이지만, 이 책의 값은 그 배치를 뚫고 튀어나오는 선연한 사례에 있다. 그리스 철학자 제논은 손가락 펜 대가 거주장스럽다며 목매달아 죽는다. 그 제자는 병 치료 때문에 며칠 절식하다 내친 김에 음식을 끊고 죽음을까지 이른다. 어떤 이는 완벽한 정장 차림으로 절벽에 기대 수면제를 삼키고, 어떤 이는 장박은 품목을 가지런히 쌓아놓고 채 그 비닐봉지 속에 머리를 집어넣으며, 누구는 장문을 열고 구경꾼을 불러모은 후 방아쇠를 당기고, 누군가는 “내가 실패한다면 부활의 축배를!”이라는 유서를 남기고 투신한다. 17세 소녀에서 98세의 노철학자 제논에 이르기까지, ‘자살의 연구’는 슬픈 자살의 사례를 전해주고 있다.

묘하게, 책 근대군데를 넘기며 이런 사례를 넘치도록 접하다 보면 머릿속이 냉정해지곤 했다. 움푹거리던 잠이 언어화되는 느낌이랄까. 자살에 대한 지은이의 독특한 취향 탓일지도 모른다. 지은이는 냉정성과 난폭성이 거의 예술적인 긴장을 이루고 있는 자살을 편애하고, 혹은 자살에서 그런 면모를 즐겨 묘사해 낸다. 이 책에 등장하는 자살자들은 삶의 마지막 장부까지 꼼꼼하고도 냉정하게 정리한 후 돌연 몸을 날리는 사람들이다. 그런 최후라면, 삶을 마지막까지 살아내야만 청구할 권리가 있으리라는 생각이 이 책을 읽다 보면 찾아들기도 하는 것이다. 누구에게나 ‘나를 파괴하고 싶은’ 순간은 있다. 정신 차리고 보면 ‘산다는 이 일’은 새삼 맹목적이고 부조리하지 않은가. 끈질긴 자기애와 특한 자기혐오와 천근만근 자포자기 속에서, 그러나 맹목과 부조리에 대한 통증이야말로 그대가 짊어지는 증거다. 오늘, 한껏 짊어주시기를.

한국음반 아카이브 2009 정기학술대회

“유성기 음반, DB구축은 필수” 복원 방법과 새로운 분류 체계 제시

일제강점기와 한국 전쟁을 거치며 소실된 유성기 음반이 많은 가운데, 지난 23일 초하당 세미나실에서 한국 유성기 음반의 데이터베이스구축에 관한 정기학술대회가 열려 관심을 끌었다. 이번 정기 학술회에서는 유성기 음반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한 효율적인 검색 방법, 이용을 위한 분류 체계, 유성기 음반의 현실 등이 다뤄졌다. 이번 학술회의 주최자인 ‘한국음반아카이브’는 이미 2006년부터 약 1년간의 연구를 통해 유성기 음반과 관련된 총괄적인 정보를 수집, 정리하고 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는 소기의 성과를 이루어낸 바 있다.

발제자인 배연형 한국음반아카이브 책임 연구원은 “한국음반아카이브는 광복 이전의 모든 노랫말을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작업 중이다”며 “노랫말을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작업은 유성기 음반에 대한 과거의 연구가 없었기 때문에 힘든 점이 많다”고 연구의 난점을 토로했다. 더불어 그는 “한국전통음악에서 유성기 음반 자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큰 편이다. 그러나 자료에 대한 접근이 손쉽지 않아 본격적인 연구대상이 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이윤정 한국음반아카이브 전임 연구원은 “데이터베이스 구축의 주된 목적은 유성기 음반을 디지털화하여, 음원의 정보 및 이에 담겨 있는 세부적인 내용을 정리하여 이를 시스템화하고 서비스하는 것이다”며 음반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자료의 분류에 관해 환경신 한남대 문헌정보학과 교수는 “한국 유성기 음반 DB를 위해 음반의 주제 내용과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음반 분류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학술회는 한국 유성기 음반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웹 환경에서 일반 대중 및 연구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연>

lly88918@dongguk.edu

우리대학 ‘일본 불교사 연구소’ 발족

역사적 악연 끊고 한·일 불교 소통의 창구로

“일본 불교는 또 다른 무류과도 같은 새로운 천지를 숨기고 있다”

일본 불교에 대한 흐름을 연구하는 연구소가 문을 열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우리대학 부설 일본불교사 연구소는 지난 23일 문화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원 기념 학술세미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김호성 교수는 “일본 불교는 그동안 역사적 악연과, 짧은 역사로 우리에게 가려져 있었다”며 “앞으로 양국 불교가 더 많은 공개적인 소통을 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일본불교사연구소는 2005년 우리대학 출판부가 마지막 권자 교수가 짓고 김호성 교수가 번역한 ‘인물로 보는 일본불교사’를 출판하면서 그 역사의 인연이 시작됐다. 당시 우리대학 출판부는 마츠오 겐지 교수의 초청 특강과 저자와의 대화를 열었는데 이 때 행사의 후원금으로 학술지 ‘일본불교사 공부방’ 제1호를 발행하게 된다. 또 이 ‘일본불교사 공부방’은 나중에 일본 불교 역사 연구소가 출범하는

데 기초 기반으로 작용한다. 양국의 학자들은 이 학술지를 계기로 일본불교사 강좌 기획, 스터디 모임 등을 가지며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해 나가게 된다. 이러한 와중에 김호성 교수와 뜻 있는 지인들이 23일, 학술 세미나 및 개원식을 열고 일본불교사연구소 개원하게 된 것이다.

국내에선 일본 불교에 대한 학술적 연구가 거의 없는 가운데 이번 일본불교사연구소는 국내 일본불교사의 거를 역할을 할 전망이다.

일본불교연구소는 연구소 원장을 맡은 우리대학 인도철학과 김호성 교수가 이끌며 불교학부 신성현 교수, 사범대(역사교육학) 황인규 교수, 불교문화연구원 연구교수 원영상 박사, 고려대장경연구소 이연숙 연구원, 민족사 대표 윤장화씨, 정우서적 대표 이성운씨 등이 연구위원으로 동참하게 된다.



▲ 종합 토론 시간에 패널들의 질문을 경청하고 있는 토론자들

김호성 교수는 “앞으로 전국의 일본학 전문가들을 불러 정기적인 학술대회를 갖겠다”고 밝혔다.

또 “일본 현지에서도 일반인들을 대

으로 한일 문화교류 아카데미나 일본 불교사 관련 강좌를 열겠다”며 앞으로의 활동에 대해 밝혔다.

이영호 기자
blueeagle@dongguk.edu

연재 학회 탐방 광고홍보학과 네오 애드 (Neo AD)

“네오 애드 활동은 나의 스무살 그 자체”



▲ 네오 애드 5기 김선영(광고홍보 99학번)·광고회사 씽크플레닛 대표(씨)가 후배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전수해 주고 있다.

광고홍보학과에서 네오 애드는 산소와 같은 존재이다. 과에서 하는 활동 보다 학회에서 이뤄지는 과 활동이 더 많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과 구성원들이 네오 애드에서 활동 한다. 광고홍보학과 08학번 이빛나양은 “네오 애드 활동은 나의 스무살 그 자체였다”며 네오 애드가 대학 생활에 있어 많은 비중을 차지했었다는 점을 얘기했다.

수 있는데 학회에선 실천적인 부분을 보충해 나간다”며 학회에 대한 만족도를 나타냈다.

그는 광고에 대해 나름대로 “광고는 결국 사람들의 커뮤니케이션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또 주위의 어떤 것이든 호기심을 가지고 분석하는 태도는 필수인 것 같다”며 광고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광고홍보학 08학번 김민아 양은 아이디어를 짜낼 땐 머리가 터져버릴 것 같지만 학회원들과 이야기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갈 때의 즐거움은 말로 다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녀는 또 학회 활동을 하면서 수업시간에 못 배웠던 표현하는 법, 회의하는 법을 배웠다고 밝혔다.

광고는 팀워크가 특히 중요하다. 회의를 통해 식상했던 처음의 아이디어도 끝에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변모되는 것이다. 창의성이 광고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팀워크도 그 만큼 강조되는 것이다.

네오 애드에선 2박 3일의 학회 MT를 가지마자 선배들로부터 과제를 부여받는다. 예를 들면 네오애드를 표현하는 인쇄 광고를 만들어 보라고 하는 것.

학회원들은 팀을 지어 나머지 기간 동안 부여받은 과제를 완성시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다. 마지막 날에는 실제 광고 업체에 종사하는 선배들로부터 과제를 심사받는다.

이 밖에도 네오애드는 매달 정기적으로 한 번 모이는 네오 데이를 갖고 선배들

의 경험을 교육 받는다. 이처럼 네오 애드는 사회에 진출한 선배와 학교에 재학 중인 후배 사이가 매우 자연스럽게 형성된다.

네오애드를 찾은 이 날도 네오 애드 5기 99학번 김선영 선배의 교육이 한창이었다. 광고 회사인 씽크플레닛(Think planet)의 사장이기도 한 그는 후배들에게 “학벌에 얽매이지 말고 자신의 꿈을 널리 펼쳐라”며 조언을 남겼다.

항상 친절하게 고민해야하고 창의적인 생각을 짜내야 하는 광고인의 길.

그때도 그들은 네오애드란 등대가 있어 힘든 일도 견딜 수 있는 원동력을 얻는다.

이영호 기자
blueeagle@dongguk.edu

알려드립니다.
25일자 5면 학술면 연재 학회 탐방 ‘백두산’ 편에서 전태일 열사 어머니의 이름과 칭호는 이선영 열사가 아닌 이소선 여사의 오기이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논단

촛불, 일상과 정치의 재구성을 꾀하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추모 열기가 뜨겁다. 고인에 대한 추모와 그리움의 이면에는 이명박 정부가 보이는 민심외면, 일방적인 국정운영, 민주주의와 인권의 역주행 그리고 특권층 정책에 대한 실망과 분노가 자리하고 있다. 때문에 일부에서는 제 2의 촛불운동과 같은 거대한 민심의 움직임이 나올 것이라는 예측마저 나오고 있다. 동시에 다른 일부에는 제 2 촛불운동은 가능하지 않음, '거리의 저항'을 민영화화 정치를 왜곡시킬 소지가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제 2의 촛불이 가능한지, 바람직한지를 떠나, 촛불운동이 한국의 시민사회운동에 던져준 과제는 무엇인가? 한국의 정치변동, 사회변동을 위한 집합적 운동을 구상하고 추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몇 가지들 함께 고민해 볼 것을 제안한다.

새로운 주제 '개인'의 등장

첫째는 사회변혁의 주체로서 '개인'의 등장에 관한 것이다. 지금까지 사회변혁을 위한 운동에서 '개인'은 주목되지 않았을 뿐더러, 어쩌면 지양되어야 하는 존재 개념으로 치부되었다. 개인을 주목한 것은 이른바 부르주아 정치철학이나 사회윤리의 영역일 뿐, 전통적인 사회변혁 사상과 이론에서 그 같은 구분은 일종의 이단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낯선 것이다. 그런데 지난 해 촛불운동에서는 '네티즌들', '촛불 소녀'나 '배운 여자들'과 같은 기존의 사회운동에서 등장하지 않

았던 전혀 새로운 개인들이 나타났다. 그들은 어떤 기성의 권위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지 않는 특색 있는 개성을 갖고 있다. 반면 동시에 정치적으로 매우 성숙하다. 분산되어 있는 듯 보이지만, 서로 소통하고 있다. 전자화 되어있고 정보의 습득과 소통 능력이 뛰어난 그들은 온라인에서 더 두드러진다. 그들의 존재기반과 행동양식은 전통적인 '계급대중'이라는 카테고리 또는 그와 유사한 집합적 개념으로 분류하거나 규정하기 어렵다. 촛불운동에서 나타난 개인성을 '중산층적 욕망' 또는 '신자유주의적 주제성'이라는 표현을 쓰며, 비판적 시각도 있다. 자신들의 문제에는 민감했지만 비정규직이나 용산참사와 같은 기층의 문제에는 무관심하다는 비판을 제기한다. 하지만 그렇게 단정하는 것은 너무 단순한 평가다. 자본주의나 사회주의 아니면 다른 어떤 생산양식에 서든 권리와 욕망의 일차적 주체는 개인이며 그 권리와 욕망은 사회를 움직이는 가장 기본적이며 독립적인 단위이다. 따라서 한국의 시민사회운동은 개인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주제성을 넓고 유연하게 포괄하면서 소통할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생활정치'의 도래

두번째는 사회변혁의 지향점과 의제가 생활의 문제로 한층 구체화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촛불은 개인들이 이른바 생활의 의제를 갖고 정치의 중심으로 들

어온 특징이 있다. 이른바 '권력정치'와는 주제나 의제의 성격, 작동의 원리가 다른 '생활정치'가 폭발한 것이다. 생명과 안전, 삶의 질은 다른 것을 통해 대리 만족할 수 없으며, 양보할 수 없는 비타협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생활 정치에는 경계하고 주의해야 할 점도 있다. '집단지기주의'나 일부 대중적 노동조합운동에서 나타나는 '전투적 경제주의'처럼 왜곡되어 나타날 위험성이 늘 도사리고 있다. 따라서 공공의 가치로 대변되는 진보적, 급진적 생활 정치를 구성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지난 해 촛불의 의제가 쇠고기에서 대운하로 그리고 교육 시장화 반대와 물, 전기, 가스, 에너지, 의료와 같은 필수적인 공공서비스의 민영화, 사유화를 반대하는 것으로 확장되었던 것은 그런 점에서 중요한 의미와 시사점을 내포하고 있다. 그것은 10년 이상의 양극화 과정에서 삶이 파괴되고 주변화 된 사람들이 그 구조적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인식하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한국의 정당정치와 사회운동은 맹아가 형성되기 시작한 '공공성의 정치'를 더 활성화 시키고, 본격화시켜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그 과제를 푸는 첫걸음은 익숙한 반대와 저항의 논리, 네거티브(negative)한 감수성을 넘어서는 정책비전을 확보하는 것이다.

'정치'의 재구성' 필요

세번째는 정치의 재구성에 관한 고민

이다. 촛불의 광장과 거리에서 우리는 민주주의의 형식과 내용 모두에서 한계와 정체를 목격했다. 민주주의 제도와 절차라는 관점에서 보자면 촛불은 선거, 투표, 다수결처럼 익숙한 장치나 원칙만으로 사회적 총의를 모을 수 없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민주주의의 내용적 정체와 퇴행에 대한 불신과 거부도 심각하다. 두 번의 민주정부를 거쳤지만 사회경제적으로 주변화 된 사람은 더 늘어났고, 빈부 격차는 구조화 되었다. '민주주의가 밥 먹여 주나?'는 불만이 터져 나왔고, 술한 약점에도 불구하고 이명박이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그러나 이명박의 '경제 살리기'는 '부자 살리기'의 위장 슬로건 이었다. 촛불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 당시부터 누적되어 온 '민주주의 배반'에 대한 분노가 폭발한 것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정치가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되는 강한 교훈 그리고 필요가 있다. 그 핵심은 가치에 기반을 둔 새로운 정치적 비전의 제시와 신뢰의 형성이다. 그러나 현실은 결코 낙관적이지 않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조금의 반성도 없이 힘을 앞세운 통치에 몰두하고 있다. 보수 내부의 이른바 합리적인 세력의 실체나 목소리는 확인되지 않는다. 민주당은 물론 진보정당까지 포함하는 야권 전체도 현재의 구도와 세력관계 그리고 정치적 관성으로는 대안이 될 수 없다. 정치의 재편을 위한 모색과 시도가 본격화 되어야 하며, 정치적 대안을 놓고 정치와 사회운동 간의 진지한 소통이 필요한 시점이다.

메아리

사공명주생중달(死孔明走生仲達)

▲사공명주생중달(死孔明走生仲達). 삼국지(三國志)에 나오는 말이다. 촉나라의 제갈공명은 위나라의 사마중달과 오장원에서 대치하던 중 자신의 죽음을 예감했다. 그래서 자신의 모습을 본뜬 좌상을 만들어 수레에 앉혀 살아서 지휘하는 것처럼 보이려는 조치를 취하고 곧 죽었다. 촉나라의 군사는 할 수 없이 철수할 수밖에 없었다. 사마 중달은 제갈공명의 사망 소식이아말로 촉나라의 군대를 무찌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 생각하고 촉의 군사를 추격하였다. 추격 중 촉나라의 군사가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북을 치고 깃발을 흔들면서 위나라의 군사 쪽으로 반격해왔다. 게다가 수레 위에 제갈공명이 살아서 앉아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였다. 사마의는 50

리 남짓 도망친 후에 부하에게 물었다. "내 목이 아직 붙어 있는가?" 그러자 부하가 답했다. "도둑! 진정하십시오! 촉병은 이미 멀리 갔습니다. 촉군은 발상을 했다고 합니다. 수레에 있던 제갈공명은 나무로 만든 상(목상:木像)이었습다" 후세의 사람들은 사마 중달의 이러한 행동을 보고 "죽은 제갈공명이 살아 있는 사마 중달을 달아나게 하였다"라고 비웃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영면에 들었다. 지난 29일 노 전 대통령의 국민장이 거행되던 날, 서울광장에는 5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모였다. 운동 노란 물결이였다. 시민들의 머리위에 환하게 웃는 노 전 대통령의 얼굴이 켜져있고 노란 풍선은 시민들의 가슴속에서 날아오를

준비를 했다. 노무현 대통령의 운구차가 서울광장에 도착했고, 노제가 거행됐다. 이후 운구행렬은 서울광장에서 서울역까지 이어졌다. 추모 인파 40여만 명은 "노무현 당신을 사랑합니다. 영원히 기억 하겠습니다"를 연호하며 노란 풍선과 함께 대통령을 떠나보냈다. ▲시민들의 추모 열기가 뜨거워지는 만큼 정부의 통제도 심해지고 있다. 서울광장에서 열릴 예정이던 시민추모제를 불허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추모 사도 형평성을 이유로 막았다. 현 정부의 모습은 "광장 공포증(아고라 포비아)"에 가깝다. 전직 대통령을 추모하고 자하는 시민들까지도 정치와 불법이라는 명예를 씌었다. 이뿐만이 아니다. 장례에 쓰기로 했던 만장도 대나무는 시위

용 '죽장'으로 변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PVC(염화비닐)파이프로 교체했다. 노 전 대통령 장례식만큼은 애도하며 자중하려했던 시민들의 생각과는 전혀 달랐던 것이다. ▲정부는 무엇이 두려운 것인가. 멀쩡한 시민을 정치꾼, 범죄자로 몰아세우는 일, 정부가 할 역할이 아니다. 시민을 공권력으로 먼저 대하는 일 또한 정도가 아니다. 죽은 공명은 산 중달을 달아나게 했다. 공명이 중달을 달아나게 했던 것은 공명의 육체는 죽었지만 정신은 살아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정치보복과 민주주의 역행이라는 '공공의 적'을 달아나게 할 것은 탈권위주의를 외쳤던 노무현 정신을 살릴 시민들의 행동이다.

대학 국가 근로장학생(교외) 희망원 접수 안내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국가 장학제도로써 등록금 및 생활비지원 등을 통한 실질적 수혜를 위하여 하계 방학 중 근로장학 희망원을 접수하고자 합니다. 1. 신청자격: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자,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이 전국 평균 이하인 학생에 한 함 2. 정수과정 재학생 3. 국가 및 학내 장학제도의 혜택을 받은 학생도 중복 지원 가능 4. 제외대상자: 석, 박사, 휴학생, 시간제 등록생, 산업체위탁생, 전공 심화과정등록생, 평생교육시설 등록생은 제외 * '07년도 건강보험료 평균 납입금액(국민건강보험공단) 구분 세대 개인 세대 개인 평균금액(원) 62,430(원) 23,449 55,054 24,065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은 '07.1.1~'08.12.31까지 월 건강보험료 납부금액 중 최저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전국 평균 기준은 '07년도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소득금액을 기준을 참고 하기 바람. 2. 선발일정: 추후 공지 예정 3. 접수방법: 학생서비스팀(본관3층) 직접제출 또는 메일접수(kimmk66@dguc.ac.kr) 4. 접수기간: 2009.5.27(수) ~ 6.5(금) 5. 근로시간 및 금액: 시간당 ₩9,000(주당 40시간 이내) 6. 근무기간: 하계방학 중 (2009.6.20(토) ~ 2009.8.31(월)) 7. 근무장소 8. 선발방법: 추후 별도 안내 구분 근무장소 대상기관 교외 1. 전공관련 : 산업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2. 비전공관련 : 사회복지시설 등(장애인, 아동복지,대학생 멘토링) 접수 후 추후 발표 9. 제출서류(공통): 추후 별도 안내 10. 지원방법: 메일 개인 통장으로 입금 * 본인이 근무 가능한 외부 산업체가 있다면 해당 업체명과 담당자를 확인해서 오시기 바랍니다.

학사지원본부

2009년 하계 "청년직장체험 프로그램" 및 "대학생 혁신형 중소기업 연수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학생경력개발원 취업지원센터에서는 2009년 하계 인턴십(현장실습) 참가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고 있습니다. 일반 기업체에서의 인턴십을 통한 경험을 쌓을 수 있고, 더불어 연수지원금과 현장실습 학점 인정의 혜택이 있는 본 프로그램에 학생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2009년 하계 노동부 청년직장체험 프로그램 1. 주관: 서울지방노동청 서울종합고용지원센터 2. 연수기간: 2009년 하계방학 중 (2개월) 3. 기업별 모집인원 및 부문: 홈페이지 내 취업공지 참조 4. 접수기간 및 접수처: 2009.5.27(수) ~ 6.5(금) 09:00 ~ 17:00, 취업지원센터 5. 제출서류: 신청서 1부(소정양식), 성적증명서/자기소개서 1부(자유양식), 자격증사본(해당자에 한함) 6. 선발일정 가. 서류접수: 2009.6.5(금) 17:00 까지 (기한 경과 시 접수 불가) 나. 기업 면접 및 최종 연수자 확정: 2009.6.8(월) ~ 6.19(금) 다. 사전직무교육 및 계약서 작성: 2009. 6월 4째 주 중 (세부일정 추후안내) 7. 연수생 지원 가. 학점: 전공전문 또는 자유선택으로 최대 3학점 (과목명: 현장실습, 성적: P/F 처리) * 학점은 현장실습 규정에 의거 학점인정이 가능한 참여자만 인정하며, 학점인정이 불가능한 참여자는 연수지원금만 지원함 나. 노동부 연수지원금 지급: 월 40만원(결근하였을 경우에는 출근일만큼 일할지급) 다. 기업 자체 연수수당 지급: 일부 기업에 한함 8. 기타 세부사항: 홈페이지 참조 9. 문의: 취업지원센터 (2260-3053 / job@dongguk.edu)

학생경력개발원

사설

대화와 토론의 장에 서자

상시입학정원 관리시스템을 비롯하여 여러 대학정책을 둘러싼 학내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이 대동제 이전부터 학내 곳곳에서 시위를 주도한데 이어 지난 26일부터 대학 본관 앞에서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또한 문과대 학생회가 주축이 된 학생들이 본관 총장 부속실에서 접거농성을 벌이고 있다. 학생들은 입학정원 관리시스템의 폐지와 합의체적 의사결정기구를 구성 하라고 학교에 요구하고 있다.

학교 측은 학생들에게 중강당에서 토론회를 갖고 대화와 토론을 통해 문제를 풀자고 주장했지만, 학생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학생들은 합의체적 의사결정기구 구성이 전제되지 않는 대화는 무의미하다는 입장이다. 상황이 경색되는 가운데 교수회가 지난 28일 총회를 열고 총장 퇴진을 결의한 뒤 팽팽도에서 플래카드를 들고 시위를 벌이는 매우 이례적인 일도 있었다. 교수들이 나서서 학생들의 농성장 주위에서 시위까지 벌이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대학의 정책을 둘러싼 이러한 갈등의 골이 해법을 찾지 못한 채 깊어지고 있다.

우리는 현재의 갈등이 학교와 구성원들 간에 소통 노력의 부재에서 기인한다고 생각한다. 학교 측은 단과대 학장과 학과장 교수들을 중심으로 의사수렴을 했고, 각종 설명회와 총장과 학생과의 대화시간을 통해 충분한 대화가 이뤄졌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하지만, 정교 교수회와 학생회는 대화의 시기, 방법, 횟수 등 모든 면이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는 늦었지만 학교측이 성의있는 대화의 자세를 갖고 대화와 토론의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자신들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는다고 해서 물리력으로 행정공간을 점거하고, 교육자로서 신중히 처신해야 할 교수들이 학생들의 농성장에서 플래카드를 들고 시위하는 것은 대학지성들의 모습치고는 설득력이 약하다. 더구나, 학생들이 학사행정의 의사결정기구에 직접 참여하겠다는 주장은 지나친 주장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또, 교수회가 총장퇴진 결의안에서 주장한 인사평가 시스템을 철회하라든가, 일간지 평가지표에만 연연한 연구지원제도를 개선하라는 등의 요구는 대학시절 개혁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기득권에 안주하려는 자세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우리는 학내구성원들이 정권이 되고 있는 학내현안에 대해 실질적이고도 집중적인 토론을 할 수 있는 대화의 공간을 제안한다. 각각의 주장을 공개되고 검증가능한 틀속에서 논의하자는 것이다. 그래서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속에서 우리 대학이 어떤 비전을 만들 수 있는지 학내의 컨센서스를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

만평



동대신문 DONGGUK UNIVERSITY PRESS 1950년 4월 15일 창간(주간) 발행인 오영교 편집인 김용현 편집장 정동훈 인터넷 동대신문 http://www.dgupress.com 인터넷 동국대학교 http://www.dongguk.edu 구독문의 : (02)2260-3491·2, 동대신문 홈페이지 서울캠퍼스 (우)100-715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3가 26 전화 (02)2260-3491·2 팩스 (02)2279-1270

이과대학 모범장학 신청자 서류 제출 안내

이과대학 모범장학 평가기준 중 가정형편(100점 만점에 40점)을 평가하기 위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정형편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기한 내 꼭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1. 제출서류 가. 2008년도 부/모 재산세과세증명서 각 1부. 나. 가족관계증명서 1부. 다. 부/모 이혼 시 혼인관계증명서 각 1부. * 부모 이혼 시 본인을 양육하는 분의 재산세과세증명서 제출 2. 제출기간: 2009.6.1(월)~6.5(금) 17:00까지 3. 제출처: 이과대학 학사운영실(명진관 1층)

심전배 철야정진 안내

정각원에서는 불교정신의 함양과 신행심 고취를 위해서 부처님전에 3천배 철야정진을 매월 첫째주 토요일 정기적으로 봉행하고 있습니다. 6월달 3천배 철야정진을 이태와 같이 봉행하오니 동국인들께서는 많은 관심과 동참을 바랍니다.

- 1. 일 시: 2009년 6월 (일토) 저녁 8시 30분 ~ 6월 7일(일) 새벽 5시 까지 * 매월 첫째 토요일 정기적으로 봉행함. 2. 장 소: 정각원 법당 3. 대상: 동국 가족 및 일반인 희망자 4. 준비물: 염주, 수건, 개인물컵 * 초심자, 절을 잘 못하시는 분도 환영합니다.

동국대학교 정각원

‘제주올레’ 즐기러 제주 올래?

걸으면서 즐기는 생태환경관광 ‘모슬포 올레’



여름방학을 3주 앞둔 이 시점에서 우리는 누구나 한번쯤 해수욕장에서 시원한 바람을 즐기며 여름을 맞이할 생각을 한다. 시원한 바람, 푸른 바다, 그리고 자연의 멋스러운 풍경 또한 즐길 수 있는 일석삼조 여행, 제주 ‘올레’를 소개한다.

제주 ‘올레’ 걷기는 지난 2007년 9월부터 시작됐다. 제주 올레란 제주어로 ‘거릿길에서 대문까지의, 집으로 통하는 아주 좁은 골목길’을 뜻한다. ‘올레’ 걷기를 주관하는 사단법인 제주올레는 이 길을 ‘평화의 길, 자연의 길, 공존의 길, 행복의 길, 배려의 길’이라고 표현한다. 도보 여행자를 위한 작은 길로 제주의 남쪽 해안가를 따라 이어지고 있다.

시간상 세 달에 한 개꼴로 늘어나는 올레 코스는 현재 12코스까지 완성됐다. 또한 7-1코스를 포함하면 올레는 총 13개의 코스로 이뤄져 있다. 올레는 걷기를 즐기는 개인들이 힘을 모아 만들어 졌다. 서명숙 (사)제주올레 이사장은 사재를 털어 길을 다듬었고, 뜻을 같이한 자원봉사자들의 노력이 모여 올레가 완성됐다. 올레에 매력을 느낀 해병대도 길을 다듬는데 참여해 일명 ‘해병대길’도 올레 코스에 들어갔다.

올레 코스는 10~20km의 거리로 구성됐다. 또한 13개의 코스는 서로 다른 모습을 내포하고 있어 모든 코스를 돌아보면 13개의 각양각색 제주의 모습을 느낄 수 있다.

하모 해수욕장에서 시작하는 11코스는 삶과 죽음이 공존하는 길, 근현대사가 녹아 있는 올레다. 제주국의 일본이 제 2차 세계대전 당시 최대의 공군 병력을 집결시켰던 야육의 현장인 알프르 비행장, ‘4·3사건’ 이후 최대의 양민 학살이 자행된 현장인 첫알오름, 정마리아 성지는 아픈 역사를 증언하는 길이다. 11코스의 절경인 모슬포는 이 지역 최대의 공동묘지가 있는 곳으로써, 제주 올레는 이곳 정상부로 올라가는 ‘잊혀진 옛길’을 산발감시원의 조언을 얻어 복원했다.

모슬포에서는 흔들리는 역사책 사이로 드넓게 펼쳐지는 제주 남서부 일대의 오름과 바다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다. 마치 막으로 통과하는 신평-무릉간 곳자왈 올레는 제주올레에 의해 처음 공개된 ‘비경의 숲’으로 또 다른 감동을 안겨준다.

11코스는 총 20km로 구성됐으며 그 경로는 하모해수욕장→첫알오름(2.2km)→백조일손포 갈림길(4.2km)→이교동 상모 2리 마을입구(6.7km)→모슬포입구(8.8km)→정난주성지(12.2km)→신평마을입구(13.5km)→곳자왈입구(14.9km)→



올레 코스를 알려주는 방향표시

곳자왈 출구(17.9km)→인항동마을입구(19.2km)→무릉2리 제주 자연생태문화체험골(20.0km)이다. 출발지인 하모 해수욕장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우선 제주공항에서 100번 버스를 타고, 제주 시외버스 터미널에 가야한다. 시외버스터미널에서 대정(혹은 모슬포)행 직행 버스를 타고 종점인 모슬포 읍내에서 내려 모슬포항과 해안도로를 지나면 해수욕장에 도착한다.

모슬포 읍내에서 하모해수욕장까지 택시를 타면 기본요금이나 주번 경치를 감상하며 걸어서 찾아가는 것을 추천한다.

멀치 유명한 하모해수욕장
모슬포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어 모슬포해수욕장이라고도 하며 예전에 멀치(뿔)가 많이 잡히던 곳이라 뿔케해수욕장으로도 불린다. 모래가 곱고 수심이 얕으며 해안가 뒤의 넓은 잔디밭에서는 야영도 할 수 있어 가족단위 피서지로 적합하다.

알려지지 않은 곳이라 호젓하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반면 야영장·주차장·화장실·탈의실·샤워장·음료수대 외에는 주변에 편의시설이 없다.

학살비극 간직한 첫알오름
한국전쟁이 발발한 후 전국적으로 보도연맹원을 학살할 때, 모슬포를 중심으로 한 제주도 서부지역의 예비 검속자 210명을 이곳에서 학살했다. 이곳은 2001년 2월, 유족들이 희생자 시신과 유물들을 재발굴 하면서 그 전에 일부 매워졌던 현장을 모두 파헤쳐 놓아 큰 구멍이 형성되어 있다. 현장 입구에는 사건 개요를 설명해주는 안내간판이 설치되어 있다.

일제시대 알프르 비행장
알프르는 ‘아래 있는 넓은 들’이라는 제주 방언이다. 대륙 침략을 위해 항공기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일본은 제주가



제주에서 처음 공개된 비경의 숲

중국과 일본의 중간 거점이라는 점을 착안하여 1926년부터 대대적인 비행장 건설 공사에 들어갔다.

10여년 만에 20만평 규모의 비행장을 건설한 일본은 중일전쟁 후, 오무라의 해군 항공기지를 이곳 알프르 비행장으로 옮기고 규모를 40만평으로 확장했다. 지금은 일제의 잔혹상을 보여주는 ‘역사교육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봉수대 흔적 모슬포
대정읍 모슬포 평야지대의 한가운데 우뚝 솟아 있는 오름으로, 모슬포에 있다고 하여 모슬봉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오름 꼭대기에는 조선시대 때 쓰이던 봉수대가 있다.

정난주 마리아 묘
정약용의 조카딸이자 ‘황사영 백서사건’으로 순교한 황사영의 아내로서 ‘바람의 땅’ 대정읍에 유배되어 살다가 생을 마감한 정난주 마리아가 묻힌 곳이다. 1994년 제주 신자들이 그녀의 묘를 대정성지로 조성했다.

신평 무릉간 곳자왈
나무와 덩굴 따위가 마구 엉클어져 수풀같이 어수선하게 된 곳을 제주말로 곳자왈이라고 한다.

곳자왈은 보은·보습 효과를 일으켜 북쪽 한계지점에 자라는 열대 북방한계 식물과 남쪽 한계지점에 자라는 한대 남방한계 식물이 공존하는 세계 유일의 독특한 숲이다.

한겨울에도 푸른 숲을 자랑하는 곳자왈은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를 소비해, 생태계의 허파 역할을 한다고 한다. 신평, 무릉간 곳자왈 길은 제주올레에 의해 처음 공개됐다.

시원한 바람, 바다, 그리고 풍경을 즐기는 곳 제주. 여름방학 제주올레를 통해 좋은 추억을 만들어 보는 건 어떨지.

이정민 기자
jeong0424@dongguk.edu



제주올레 100% 즐기기

1. 어떤복장으로 여행할까
편한 운동화나 트레킹화, 등산화 등을 준비하는 것이 기본. 여름철 바닷가를 걷는 즐거움을 위해서는 샌들을 따로 준비하면 좋다.

2. 금강산도 식후경, 11코스 먹거리!
산방식당은 모슬포 시내 상설시장 인근에 위치하고있다. 이곳의 밀면은 양 많고 가격도 저렴해 인근 주민들에게 인기가. 또한 항구식당은 모슬포항 내에 위치해 있다. 자리 물회, 한치 물회 등 물회가 유명하고, 자리 구이 등 자리를 이용한 음식도 일품이다.

3. 휴식과 체험을 한번에
제주 자연생태문화체험골 11코스 종점에 위치한 생태학교 숙소 1인당 1만원이며, 아침 식사도 가능하다. 폐교를 리모델링해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을 몸소 느끼고 과거 제주인들의 생활상을 직접 체험할 수 있게 만든 공간.

방학 때 독도를 만나러 가보자

직접 찾아가보는 독도 배낭여행 방법

1. 독도는?
“울릉도 동남쪽 뱃길 따라 200리 외로운 섬 하나 새들의 고향”
독도는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1-96 번지에 위치한다. 한편, 독도는 1905년 일본이 독도를 시마네현에 편입시킨 뒤부터 우리나라와 일본과의 독도에 대한 영유권분쟁이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다.

2. 독도에 가면
-독도에 가면 한반도 지도 형상을 볼 수 있다!
한반도 지도 형상은 독도의 동(東)도 동쪽 점안실로 가는 쪽에 위치해 있으며 그 모양이 뚜렷하여 누구든지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다.
-독도에 가면 독도 국기계양대 및 머

릿돌 표석을 볼 수 있다!
머릿돌 표석에는 ‘천지창조 첫 날에 한반도의 궤(軌)로서 태어나 개국 벽두에 조선땅으로 명명되어 오늘도 태극기는 독도를 지키노라’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다. 독도에 게양돼있는 태극기와 머릿돌 석을 보면서 독도는 우리의 땅이란 것을 느껴보는 것은 어떨까.
-독도에 가면 독도 경비대가 있다!

독도 경비대는 독도를 전쟁에서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닌, 독도가 우리나라 땅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독도경비대가 존재함으로써 일본이 독도를 침범하는 행위는 한반도 침략 행위가 된다. 한마디로 군사적인 위협에 대한 대비는 돼있지 않지만, 독도 경비대가 존재함으로써 인하여 독도는 우리의 영토라는 것을 증명하는

셈이 된다.
독도 경비대는 군인이 아닌, 경찰로 구성돼 있다. 이유는 독도에 군대를 배치시키면 독도가 영토 분쟁지역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3. 아름다운 섬, 독도를 가려면 입도 신고절차 알아야 한다!

일반 관광객의 입도 신고 절차는, 먼저 신청인이 여객선사를 예약한다. 여객선사에서는 일괄입도선도를 거쳐 울릉군에서 신고필증을 교부 받으면 된다. 일반 관광객의 경우에는 기상여건 및 형편에 따라 입도가 어려울 수 있고, 독도 입도는 하루 1,880명으로 한정되어 있다. 또한 일반 관광객의 경우에 독도 관광 구역은 동도 독도에 일반 관광객 목적으로 간다면, 20~30분 정도 체류하여 정해진 구역만 관람할 수 있다. 하지만 짧은 시간이라도 나 자신을 되돌아보고 우리나라의 역사를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한다. (은)
tjwleod36@dongguk.edu



<4> 노영석 감독의 ‘낮술’

유지나 교수의 독립 영화 이야기



책조차 읽을 수 없다는 말, 외롭고 힘들면 책임기로 인생산책 에너지를 얻어온 나같은 사람에게 노간지의 마지막 말들 중 이 대목에 나는 가슴이 무너졌다. 하여 학생친구들과 시창회에 나가 있다가 늦은 낮술을 반주삼아 마시다 ‘낮술’을 떠올린다.

적당한 술이야 몸과 마음을 활성화시키는 약이지만, 문제는 ‘적당한 술’이라는 기준과 절제가 불가능한 세상이다. 스스로를 천상에서 귀환한 저주 받은 새 ‘알바트로스’라고 천명한 보들레르는 이 부조리한 세상을 위해서 살수밖에 없었던 프랑스의 이태백이다. 하여 맨정신으로 견디기 힘든 상태를 노영석감독은 알콜의 기운을 빌려 취생몽사풍의 몽롱한 유머로 풀어낸다.

실연의 아픔을 낮술로 달래던 혁진(송삼동)은 친구들의 강권으로 정선 여행길에 오른다. 약속한 친구들은 보이지 않고 달랑 홀로 정선터미널에 남겨진 혁진. 터미널의 작고 누추한 나무 장의자는 변하는 사랑의 비의를 그려낸 <봄날은 간다>에 나왔던 바로 그 공간이다.

첫 잔에 웃고, 막잔에 눈물 썩 빼는 그런 영화

이제 홀로 정선에 떨어진 혁진의 5박6일 여행담은 술이 불러들이는 에로스 판타지로 점철된다. 첫 잔부터 어긋나게 끼어진다. 친구 선배의 팬션이라고 착각하여 찾아간 곳에는 아리따운 여자(김강희)가 그를 유혹한다. 긴 머리에 흰 피부, 남자의 로망이다. 버스 정거장에서부터 술을 권하는 그녀를 경포대에서 재회한 혁진은 그녀를 막 대하는 남자의 강요에 놀려 어리광으로 이어지는 술자리에 끌려 들어간다.

그리하여 꽃뱀에 걸려든다. 속옷바람으로 추운 겨울 산길에 버려진 혁진은 구조를 당하지만 이번에는 또 다른 위기에 직면한다. 하긴 꽃뱀 여자만 합정은 아니니까. 술을 마시려 하지 않아도 친구나 선배의 강권으로 훌쩍거리던 술잔은 이어진다. 취하면 억압된 에로스 본능이 작동한다.

경포대행 버스에서 만났던 란희(이란희)가 불현듯이 등장해 질풍을 만들어 낸다. 거친 인상에 하이쿠를 읊으며 과감하게 도전하는 란희는 (남자의) 로망을 깨지만, 드라마의 반전을 주도하는 복병 역할을 도발적으로 처리해낸다.

서울과 정선을 잇는 여정은 욕망이 뒤엉켜 버린 알콜리즘적 관계론이 되버린다. 한 잔만으로 시작하지만 어느 순간 술이 인간을 마시게 된다. 그러던 억압됐던 에로스 판타지가 피어오른다. 바로 이 과정을 담담하게 미시적으로 따라잡는 노영석의 응시는 알콜이 인간에게 미치는 심리 관찰 보고서가 된다.

천만원짜리 초미니 제작비로 알콜 인간심리해부학을 허허실실 풀어낸 ‘낮술’이 전주영화제에 이어 일본개봉을 성취하고, 국제영화제들에 출품되는 성과는 경제담론에 묻혀간 영화보기에 도전한다. 영화는 기술과 돈, 인간상상력의 결과물이지만, 돈의 규모가 결정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BOOK 이 주의 신간

조상식 교수가 쓴 청소년 철학소설 ‘푸코 감옥에 가다’

이 책은 프랑스의 철학자 미셸 푸코의 사상에



푸코 감옥에 가다

지은이 : 조상식
펴낸곳 : 디딤돌

에 바탕을 둔 청소년 철학 소설이다. 푸코는 당시를 지배했던, ‘이성’을 주요 개념으로 한 사상에 저항해 새로운 진리와 철학을 만들어가는데 크게 기여했다. 조상식(교육학과) 교수는 그런 푸코의 사상을 전문가가 아닌 이들에게 소개하기 위해 소설이라는 장르를 선택했는데, 그는 주제별로 각기 다른 형태의 설명이 필요한 푸코 철학의 특성상 가장 적절한 선택이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푸코의 사상을 하나의 이야기 속에 녹여내고 있어 한 편의 소설로 푸코를 일정 수준 이상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또한 쉬운 단어를 선택하여 전문지식이 부족한 독자들의 이해를 돕는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지금까지 서구 철학이 당연히 여겨왔던 이성과 계몽의 의미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제기했다는 점에서, 그리고 그동안 깊이 있게 다루지 않았던 권력의 문제를 진지하게 파헤쳤다는 점에서, 현대 철학에서 차지하는 푸코의 비중은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또한, 푸

코와 그의 사상은 철학뿐만 아니라 역사, 문화, 예술, 사회과학, 심리학, 심지어 의학에까지 현대 사회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 소설은 쓴 조상식 교수는 푸코의 중요한 연구 주제들을 하나의 스토리라인에 모두 포괄해 쉽고 재미있게 그의 사상에 접할 수 있도록 하자는 야심을 갖고 3년여에 걸쳐 집필한 끝에 책을 출판했다.

이정민 기자
jeong0424@dongguk.edu

Gallery 이 주의 전시

불교미술학과 재학생 불교 전시회

불교미술학과 과제 전시회에서 불교미술학 전공 학생들에 의해 고려시대 및 조선시대 불화가 재탄생 됐다.



이번 과제전은 불교미술을 전공한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여 현재 국내나 보물로 지정돼 있는 작품을 모작으로 하여 고려불화 및 조선불화를 재현했다.

과제전은 동국갤러리에서 지난 28일부터 오는 2일까지 6일간 개최되며 약 40 여점의 작품이 전시되고 있다.

1, 2학년 학생들이 직접 그린 고려불화는 불교의 최전성기를 누렸던 고려시대의 아미타여명도, 미륵불화, 수월관음도, 지장보살도 등의 작품을 재현했으며 고려불화의 특징인 맑고 밝으면서 은은한 색조를 잘 표현해 냈다. 또한 금선을 사용하여 그림의 화려함까지 더했다.

한편, 3학년 불교미술학과 학생들이 재현한 조선시대 불화는 고려시대의 불화보다는 다소 수수한 경향을 보인다.

<01>
littleche@dongguk.edu